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슌 1:1-21)

I. THE MESSAGE OF THE BOOK AND THE SIGNIFICANCE OF ZECHARIAH 1

스가랴서의 메세지와 스가랴서 1 장의 중요성

- A. The book of Zechariah emphasizes the zeal of God and His glorious plans for Jerusalem, the Jewish people, and the land of Israel (1:12-2:12; 8:2-22). It makes clear that Jesus will be seen as Messiah in His supremacy in all the nations (2:11; 6:12-13; 9:10, 14; 12:10; 14:10, 17).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런 계획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한다 (1:12-2:12; 8:2-22).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 주권적인 메시아로서 나타나실것을 분명히 밝힌다 (2:11; 6:12-13; 9:10, 14; 12:10; 14:10, 17).

- B. The temple in Jerusalem will be the worship center of the earth in the Millennium (14:16). Thus the message of this book is especially relevant to the prayer movement in this hour because there is “continuity” with it and the Jerusalem worship center in the Millennium. The Lord called Zerubbabel’s temple the “house of prayer” (Isa. 56:7) and Jesus affirmed this (Mt. 21:13).

예루살렘 성전은 천년왕국에서 이 땅의 예배 센터가 될 것이다 (14:16). 따라서, 스가랴서의 메세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천년왕국 예루살렘 예배 센터와의 “연속성” 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의 기도운동과 관련이 있다. 주님은 스투바벨 성전을 “기도의 집” 이라 불렀고 (사 56:7), 예수님은 이것을 확증하셨다 (마 21:13).

- C. Zechariah called Israel to repent and return to the Lord, and then promised that He would return to them. The book of Zechariah was written to encourage Israel in a time of despair. So it is surprising that its first message was a call to repentance with warnings of judgment (1:1-6). It is one of the strongest repentance messages in the Bible, and acts as a foundation to the book’s message of hope. An authentic message of love and hope must include a call to repentance.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으며,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키실 것을 약속하였다. 스가랴서는 절망의 때에 놓인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기 위해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첫째 메세지가 심판의 경고와 함께 회개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놀랍다 (1:1-6). 스가랴서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회개의 메세지 중 하나이자, 소망의 메세지의 기초 역할을 한다. 사랑과 소망에 대한 진정한 메세지는 반드시 회개로의 부르심을 포함해야 한다.

³“Return to Me,” says the LORD of hosts, “and I will return to you.” (Zech. 1:3)

³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슌 1:3)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속 1:1-21)

1. ***Return to Me:*** The Lord calls His people to repent, knowing that it is the only way that they will be positioned to live in the joy and blessing of a deep relationship with Him.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 하신다. 주님이 그것만이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2. ***I will return to you:*** The Lord motivates His people to repent by promising to return to them with the blessing of His manifest presence. (Rom. 2:4).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은 그분의 분명한 임재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 (롬 2:4)

D. ***God's emotions:*** Zechariah 1 highlights four divine emotions—zeal, anger, mercy, and patience.

하나님의 감정: 스가랴 1 장은 하나님의 네 가지 감정을 강조한다 - 열정 (질투), 분노, 자비, 그리고 인내.

1. ***Zeal:*** God's eternal disposition is zealous love. He has great zeal to glorify His name, to establish His people and purposes, and to remove all that hinders love (1:14-17; 8:2-8).

질투: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목적을 세우고,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한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1:14-17; 8:2-8).

¹⁴***“Proclaim... ‘I am zealous for Jerusalem and for Zion with great zeal.’” (Zech. 1:14)***

¹⁴ 외쳐 이르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속 1:14)

²***“Thus says the LORD of hosts: ‘I am zealous for Zion with great zeal.’” (Zech. 8:2)***

²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속 8:2)

2. God has ***great zeal*** for Jerusalem (1:14; 8:2), with ***tender mercy*** in dealing with the sins of her people (1:12, 16; 7:9; 10:6). Therefore, He comforts her (1:13, 17) with His glorious plans for her future. The Lord was ***angry*** with Jerusalem (1:2, 12) for a short time (1:15). However, He was ***exceedingly angry*** with the nations that oppress her (1:15), yet is ***patient*** with them (1:11, 15), knowing that their judgment will come in His timing.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의 죄를 다루실 때에, **부드러운 긍휼**과 (1:12, 16; 7:9; 10:6)

예루살렘을 향한 **큰 질투**를 가지고 계신다 (1:14; 8:2).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미래의 영광스런 계획으로 그 땅을 위로하신다 (1:13, 17). 주님은 잠시동안 (1:15)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 (1:2, 12).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지극히 진노**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아시기에 그들을

인내하신다 (1:11, 15).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슥 1:1-21)

- E. **Proclaim:** The book of Zechariah is a forerunner message that must be proclaimed (1:14, 17). The whole message must be proclaimed in the generation when many events in the book occur.
선포: 스가랴서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선두주자의 메세지이다 (1:14, 17). 전체 메세지는 스가랴서에 소개된 많은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발생될때, 그 세대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 F. The negative part of the Lord's view of Israel and the nations is difficult to say. Thus, Zechariah needed to be *commanded* to proclaim the full message that he received. He did not downplay the truths about God's judgment or the need for repentance in his message of love and hope. This caused him problems with the leaders of his day, both Gentile and Jewish. He was martyred by the Jewish leaders, who were obviously angered by his preaching (Mt. 23:35; Lk. 11:51).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에 대한 주님의 부정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스가랴는 그가 받은 모든 메세지를 담대히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 더 나아가 사랑과 소망의 메세지 가운데서 회개의 필요성을 결코 경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스가랴는 당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다. 그의 설교에 너무나도 분노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그는 순교를 당하였다 (마 23:35; 눅 11:51).
³⁵ **...the blood of Zechariah, son of Berechiah, whom you murdered between the temple and the altar. (Mt. 23:35)**
³⁵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 (스가랴)의 피... (마 21:33-35)
- G. There is no contradiction in God's personality as He manifests His various emotions, e.g., mercy and anger. Nor is there any contradiction in Him when He releases His disciplinary judgments in order to prepare His people for mercy. He never suspends one attribute to exercise another.
 자비와 분노와 같은 하나님의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내실 때에 그분의 성품에는 그 어떤 모순이 없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 시키는 징계와 연단의 심판을 풀으실 때도, 그분 안에는 일말의 모순도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 속성을 행하기 위해 결코 다른 속성을 중단 시키지 않으신다.

II. INTRODUCTION TO THE BOOK (1:1)

스가랴서 소개 (1:1)

- A. The timing of the book of Zechariah (1:1) is dated by the reign of Darius since there was no king of Israel. This indicates the times of the Gentiles (Lk. 21:24), when the Gentiles control all or part of Jerusalem. It began with Nebuchadnezzar and will continue until Jesus' return.
 스가랴서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관계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1:1). 이것은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영역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때를 의미한다 (눅 21:24). 그 시기는 느브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스 1:1-21)

¹*In the eighth month of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Zechariah the son of Berechiah, the son of Iddo the prophet... (Zech. 1:1)*

¹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 1:1)

- B. ***Eighth month:*** Darius I, or Darius the Great, king of Persia, reigned from 522 to 486 BC. This repentance message was given in **November 520 BC**, three months after Haggai's ministry began on August 29. He gave four messages from **August to December 520 BC** to stir Israel to action.

여덟째 달: 다리오 1 세, 또는 페르시아 (바사) 왕 다리오는 주전 522 년부터 486 년까지 통치하였다. 이러한 회개의 메세지가 8 월 29 일 학개의 사역이 시작된 지 3 개월 후인 **주전 502 년 11 월**에 임했다. 그는 **주전 520 년 8 월부터 12 월까지** 이스라엘이 행동을 취하도록 일으키는 네 개의 메세지를 주었다.

- Haggai's first message was given on **August 29**. He called Israel to start rebuilding the temple (Hag. 1:2-11). They started work 24 days later on **September 22** (Hag. 1:12-15).
8 월 29 일에 학개에게 첫째 메세지가 임했다. 학개는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 (학 1:2-11)을 시작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4 일이 지난 **9 월 22 일**에 성전재건을 시작하였다 (학 1:12-15).
- Haggai's second message was on **October 17**. He called them to *be strong* (or to be resolved to not quit), to *work* diligently, and to *resist fear* (Hag. 2:1-4).
학개에게 둘째 메세지가 임한 것은 **10 월 17 일**이었다. 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또는 그만두지 않도록 결단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 Zechariah's first message was given in **November**. He called them to repentance (1:1-6) because they had so quickly stumbled in compromise (1:3). They repented quickly (1:6).
스가랴의 첫번째 메세지는 **11 월**에 임했다. 그는 이스라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1:1-6) 왜냐하면, 그들은 타협가운데 너무 쉽게 실족하였기 때문이다 (1:3). 그들은 신속히 회개하였다 (1:6).
- Haggai's third message was given on **December 18** (Hag. 2:10-23). He rebuked the priests for continuing in compromise and the people for delaying the work on the temple. He told them that their obedience would result in economic blessing (Hag. 2:10-17).
셋째 메세지가 학개에게 **12 월 18 일**에 임했다 (학 2:10-23). 그는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타협하는 것과 성전 재건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책망했다. 그는 순종이 경제적인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학 2:10-17).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스 1:1-21)

5. Zechariah's second message was on **February 15, 519 BC** (1:7-6:8), three months after his first message and five months after work on the temple resumed (Hag. 1:15).
스가랴에게 둘째 메세지가 **주전 519년 2월 15일**에 임했는데 (1:7-6:8), 이 때는 그에게 첫째 메세지가 임한지 3개월이 지난 후였으며, 성전 재건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난 후였다 (학 1:15).

- C. **Son of Iddo:** The genealogies in Ezra do not mention Zechariah's father, Berechiah, but only his more prominent grandfather, Iddo (Ezra 5:1; 6:14). The word *bēn* can also be translated as "grandson of." Iddo was a priest who returned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Neh. 12:4, 16).

잇도의 손자 (영어 표현으로는 '잇도의 아들' 로 표현 되어 있다: 역주): 에스라서의 족보는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가를 언급하지 않으며, 보다 유명한 할아버지, 잇도만을 언급한다 (스 5:1; 6:14).

'벤' 이란 단어는 또한 "~의 손자" 로 해석할 수 있다. 잇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이었다 (느 12:4, 16).

III. ZECHARIAH'S FIRST MESSAGE (1:1-3): A CALL TO REPENTANCE

스가랴의 첫번째 메세지 (1:1-3): 회개로의 부르심

- A. Zechariah's first message was a call to repentance (1:1-3).

스가랴의 첫째 메세지는 회개로의 부르심이었다 (1:1-3).

¹The word of the LORD came to Zechariah...saying, ²"The LORD has been very angry with your fathers. ³Therefore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of hosts: "Return to Me," says the LORD of hosts, "and I will return to you," says the LORD of hosts.'" (Zech. 1:1-3)

¹여호와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²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³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스 1:1-3)

1. **Return to Me:** Repentance is a call to live in agreement with God's Word. It involves turning to the Lord (1:3) and turning from sin (1:4). Jesus, John the Baptist, the apostles, and all the prophets boldly called the people to repent. The message of repentance was foundational to the ministry of Jesus (Mt. 4:17), John the Baptist (Mt. 3:2), Peter (Acts 3:19) and Paul (Acts 17:30). For more on this message, see Mt. 9:13; 11:20-21; 12:41; Mk. 1:4, 15; 2:17; 6:12; Lk. 3:3-8; 5:32; 10:13; 11:32; 15:7, 10; 16:30; 17:3-4; 24:47; Acts 2:32; 3:19; 5:31; 8:22; 11:18; 13:24; 17:30; 19:4; 20:21; 26:20; Rom. 2:4; 2 Cor. 7:9-10; 12:21; 2 Tim. 2:25; Heb. 6:1, 6; 2 Pet. 3:9; Rev. 2:5, 16, 21-22; 3:3, 19; 9:20-21.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1:3)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포함한다 (1:4). 예수님, 세례요한, 사도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담대히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회개의 메세지는 예수님 사역의 근본적인 내용이었다 (마 4:17). 이에 대한 보다 많은 메세지는 마 9:13; 11:20-21; 12:41;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속 1:1-21)

막. 1:4, 15; 2:17; 6:12; 눅. 3:3-8; 5:32; 10:13; 11:32; 15:7, 10; 16:30; 17:3-4; 24:47; 행 2:32; 3:19; 5:31; 8:22; 11:18; 13:24; 17:30; 19:4; 20:21; 26:20; 롬 2:4; 고후 7:9-10; 12:21; 딤후 2:25; 히 6:1, 6; 벧후 3:9; 계 2:5, 16, 21-22; 3:3, 19; 9:20-21 를 참조하라.

2. ***I will return to you:*** The Lord promises to return to Israel. He returns spiritually with blessing and then physically at the second coming (1:16; 2:5,10; 8:2; 9:9-10; 14:3-5, 10).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분은 영적인 축복으로 돌아오시며, 재림 때는 몸으로 오신다 (1:16; 2:5,10; 8:2; 9:9-10; 14:3-5, 10).
3. ***Very angry:*** The Lord has never been angry enough to end His relationship with Israel. Zechariah clarified that God was a “little angry,” or angry for just a little while (1:2, 15).
심히 진노하다: 주님은 결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실 만큼 진노하신 적이 없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조금 노하셨고, 또한 단지 잠시 동안만 노하셨음을 분명히 밝혔다 (1:2, 15).
4. ***Lord of Hosts:*** Three times in verse 3, Zechariah refers to God as “the Lord of Hosts,” or “YHWH of hosts.” This title emphasizes the Lord’s function as the divine warrior, who goes to war to deliver Israel from oppressive nations and judges Israel for her rebellion.
만군의 주: 스가랴는 3 절에 세번씩이나, 하나님을 “만군의 주” 또는 “만군의 야훼” 라고 언급한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시고, 이스라엘의 거역함에 대해 심판 하시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주님의 역할을 강조한다.

B. Zechariah appeals to Israel’s past refusal to repent and the resulting judgment (1:4-6). Their forefathers rejected the prophets who called them to repent (Isa. 1; Jer. 3; Ezek. 18; Joel 2; etc.). 스가랴는 과거 이스라엘이 회개를 거부하고 그 결과로 임한 심판에 대해 호소한다 (1:4-6). 그들의 조상들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선지자들을 거부했다 (사 1; 렘 3; 겔 18; 율 2; 등등).

⁴“Do not be like your fathers, to whom the former prophets preached, saying,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urn now from your evil ways...”’ But they did not hear nor heed Me”...

⁵“Your fathers, where are they? And the prophets, do they live forever? Yet surely My words did they not overtake your fathers? So they returned and said: ‘Just as the LORD of hosts determined to do to us, according to our ways...so He has dealt with us.’” (Zech. 1:4-6)

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⁵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⁶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속 1:4-6)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슌 1:1-21)

1. ***God's words overtook Israel:*** God's words of judgment "overtook" Israel when He sent them into Babylonian captivity because of their evil ways. God's Word always overtakes rebellion because it cannot return to Him void without fulfilling its purpose (Isa. 55:11).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성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없기에 항상 말씀으로 불순종을 다루신다. (사 55:11)
2. God releases His judgments and blessings as He promised in His Word. (Deut. 28:15, 45)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과 축복을 베푸신다 (신 28:15, 45).
¹⁵It shall come to pass, if you do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that all these curses wi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⁴⁵Moreover all these curses shall come upon you and pursue and overtake you, until you are destroyed, because you did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to keep His commandments... (Deut. 28:15, 45)
¹⁵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⁴⁵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신 28:15, 45)
3. ***They returned:*** The people of Zechariah's day repented when they heard his message of repentance (1:6). It resulted in receiving God's blessing in that generation (8:9-15). Some say that people today will not respond to the old-fashioned message of repentance. God's Word will surely overtake any "popular" trend that is rooted in compromise.
그들이 돌아오다: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의 메세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였다 (1:6). 그로인해 그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8:9-15). 어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라는 진부한 메세지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타협이라는 뿌리에 기반을 둔 "인기있는" 유행(트렌드)을 뒤엎을 것이다.
4. ***As the Lord determined:*** Zechariah told them it was because of God's judgment on their sin that the Lord had sent them into Babylonian captivity. They returned to the Lord by agreeing that it was because of their sin that the Lord had determined to judge them (1:6).
주님이 결정하신대로: 스가랴는 주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왔다 (1:6).
5. The Lord insists that Israel acknowledge their sin that causes Him to judge them. This is the very thing that Israel will do when they mourn over Jesus, whom they pierced (12:10). To acknowledge persistent sin and God's corresponding discipline leads to restoration.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속 1:1-21)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그들의 죄였음을 인정하라고 강조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찢렸던 예수님에 대해 애통할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부분이다 (12:10). 끊임없는 죄와 하나님의 상응하는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⁴⁰But if they confess their iniquity and the iniquity of their fathers... ⁴¹...if their uncircumcised hearts are humbled, and they accept their guilt ⁴²then I will remember My covenant... ⁴³The land shall be left empty...they will accept their guilt, because they despised My judgments and because their soul abhorred My statutes. ⁴⁴Yet for all that, when they are in the land of their enemies, I will not cast them away... (Lev. 26:40-44)
⁴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⁴¹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⁴² 내 언약을 기억하며... ⁴³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⁴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레 26:40-44)

6. ***Where are your fathers:*** Zechariah called them to consider what fruit their fathers gained by ignoring God’s commands. The prophets who warned them died, but their warnings did not die with them. God’s words from their lips continue to have relevance.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스가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함으로써 그들의 조상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살필 것을 촉구하였다. 그것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경고는 그들과 함께 죽지 않았다. 선지자들의 입술로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타당하다.

⁵Your fathers, where are they? And the prophets, do they live forever? (Zech. 1:5)
⁵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속 1:5)

7. Man’s life span is short, but God’s Word transcends every generation. It is consistent and reliable over thousands of years. Zechariah’s generation acknowledged that the Lord was judging them just as had He promised to do if they did not obey Him (Deut. 28:15, 45).

사람의 수명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년을 뛰어넘어 한결같고 신뢰할 수 있다. 스가랴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 심판이 임할것을 약속하셨던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신 28:15, 45).

IV. INTRODUCING THE FIRST VISION (1:7)

첫번째 환상에 대한 소개 (1:7)

- A. Zechariah’s second message included eight visions that he saw all on the same night (1:7-6:8). These eight visions focus on the future of Israel, particularly Jerusalem and the temple. They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슌 1:1-21)

were not fulfilled in Zechariah’s day. Their purpose was to encourage the people to persevere in the work of building the temple. They are helpful to any who are building a house of prayer.

스가랴의 둘째 메세지는 그가 같은 날 밤에 본 여덟개의 환상들을 포함한다 (1:7-6:8). 이 여덟개의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미래, 특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한다. 그 환상들은 스가랴 생전에 성취되진 않았다. 그 환상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이 환상들은 기도의 집을 세우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도움과 격려가 된다.

- B. This first vision emphasized that God was zealous for His people and would restore Jerusalem and the temple with His glory and that He would not cast Israel off while under Gentile control. 첫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해 질투하시며,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시고, 이방인의 지배 아래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에 대해 강조한다.
- C. The twenty-fourth day of the eleventh month (Shebat) on our modern calendar would have been on **February 15, 519 BC** (1:7). This was three months after Zechariah’s first message on repentance given in November. Five months earlier, on same day (24 Shebat), the rebuilding of temple resumed as the people were stirred by the prophesying of Haggai (Hag 1:14-15). 열한째 달 (스밋월) 스물 넷 째 날은 현대력으로 **주전 519 년 2 월 15 일** 이 된다 (1:7). 이것은 11 월에 주어진 회개에 대한 스가랴의 첫째 메세지가 임한 후 3 개월이 지난 후다. 5 개월 전의 같은 날 (스밋월 24 일) 사람들은 학개의 예언에 감동을 받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었다.

⁷*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eleventh month, which is the month Shebat, in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Zechariah... (Zech. 1:7)*

⁷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밋월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슌 1:7)

V. FIRST VISION: THE MAN ON A RED HORSE (1:7-17)

첫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탄 사람 (1:7-17)

- A. **Summary:** Zechariah saw a man riding a red horse among a grove of myrtle trees in a valley, followed by a team of red, sorrel, and white horses (1:8). The “man” was the Angel of the Lord, the preincarnate Christ, who appeared in the form of an angel (1:12). The man explained that the horses carried the angelic riders who patrolled the earth (1:10). These angelic scouts reported to the Lord that at that time there was “rest” from war and revolt in the nations (1:11, 15).

요약: 스가랴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숲 사이에 계신 붉은 말을 타고,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하얀 말 무리가 따르는 한 사람을 보았다 (1:8). 그 “사람” 은 여호와와의 천사였는데, 실상 천사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성육신 하기 전의 그리스도였다 (1:12). 그 사람은 그 말들에 대해 이 땅을 순찰하는 천사 기수들을 태우는 말들이라고 설명하였다 (1:10). 이러한 천사 정찰병들은 주님께 그 당시 열방 가운데 전쟁과 소요로부터 “평안” 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1:11, 15).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스 1:1-21)

⁸I saw by night, and behold, a man riding on a red horse, and it stood among the myrtle trees in the hollow; and behind him were horses: red, sorrel, and white. ⁹Then I said, “My lord, what are these?” So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said to me, “I will show you what they are.”

¹⁰And the man who stood among the myrtle trees answered and said, “These are the ones whom the LORD has sent to walk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¹¹So they answered the Angel of the LORD, who stood among the myrtle trees, and said, “We have walked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and behold, all the earth is resting quietly.” (Zech. 1:8-11)

⁸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⁹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¹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 (그사람: 역주)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¹¹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스 1:8-11)

1. Most commentators see only two angels in this passage—the Angel of the Lord (or the man among the myrtle trees; (1:8, 10) and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1:9, 13-14).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서 단지 두 천사들만 본다 - 여호와의 천사 (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1:8, 10) 와 “내게 말한 천사” (1:9, 13-14).

2. There were four persons or groups interacting in this vision (1:8-11)
이 환상에는 네 명의 사람들, 또는 상호간에 교류하는 무리가 있었다 (1:8-11)

1. The man (1:8, 10) on the red horse, who is the Angel of the Lord (1:11-12)
여호와의 천사 (1:11-12)인 붉은 말을 탄 사람 (1:8, 10)

2. The prophet Zechariah
선지자 스가랴

3. The interpreting angel, called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1:9, 13-14)
“내게 말하는 천사” 라고 불리우는 대언하는 천사 (1:9, 13-14)

4. The patrolling angels on a team of horses following the man (1:8, 10-11)
그 사람 (첫째 인물: 역주)을 따르는 말들을 탄 정찰하는 천사들 한 무리 (1:8, 10-11)

B. **The man:** The man riding a red horse (1:8) remains unidentified throughout the passage. Most conservative commentators agree that the man among the myrtle trees in verses 8 and 10 is the same as the Angel of the Lord who stood among the myrtle trees in verse 11. He is also probably the same man who measured Jerusalem in the third vision (2:1-2).

그 사람: 붉은 말에 올라탄 사람은 그 구절 전체에 걸쳐 정체불명으로 남아 있다 (1:8). 대부분의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8 절과 10 절에 나온 화석류 나무에 있는 사람이 11 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슥 1:1-21)

있는 ‘여호와와의 천사’ 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아마도 셋째 환상에서 예루살렘을 축정했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일 것이다 (2:1-2).

- C. ***Angel of the Lord:*** The Angel of the Lord is the preincarnate Christ, who also appears in Zechariah 3:1-2. The Angel of the Lord addresses the Lord as a separate person (1:12). In some passages, the Angel of the Lord is distinct from God, but is then described as if He is the Lord (Gen. 16:7-13; 31:11-13; Ex. 3:2-6, 14; 23:20-22; Num. 22:22-35; Judg. 6:11-18).
- 주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는 스가랴서 3:1-2 절에 다시 나타난 성육신하시기 전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의 천사는 주님께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서 말을 건넨다 (1:12). 몇몇 구절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과 명백히 구별되지만, 그 후 마치 그가 주님인것 처럼 묘사된다 (창 16:7-13; 31:11-13; 출 3:2-6, 14; 23:20-22; 민 22:22-35; 삿 6:11-18).
- D.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An interpreting angel talked to Zechariah throughout the night visions to help him understand them (1:9, 13, 14, 19; 2:3; 4:1, 4; 5:5, 10; 6:4). He is the same one who is called “my lord” (1:9). The interpreting angel was going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horses (1:9), but the man spoke up to explain their role with the patrolling angels (1:10).
- 나에게 말했던 천사:** 밤에 나타난 환상들에 대해 스가랴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언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했다 (1:9, 13, 14, 19; 2:3; 4:1, 4; 5:5, 10; 6:4). 그는 “나의 주여” 라고 불리우는 자와 동일한 존재이다 (1:9). 그 대언하는 천사는 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정찰하는 천사들과 함께 그 말들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강력히 말하였다 (1:10).
- E. ***What are these:*** Zechariah asked for understanding of the horses (1:9). The interpreting angel described them as an angelic patrol of the earth who reported to God (1:10-11). He asked the same angel seven times: “What are these?” (1:9, 19, 21; 4:4, 11, 12; 6:4).
- 이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는 말들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 (1:9). 대언하는 천사는 말들에 대해 이르기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 정찰병으로 묘사했다 (1:10-11). 스가랴는 동일한 천사에게 일곱번씩이나 물어보았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1:9, 19, 21; 4:4, 11, 12; 6:4).
- F. ***Walked to and fro:*** The angelic riders who walked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1:10) on the colored horses (1:8) patrolled the earth and reported back to the Lord (1:11). There is a deep interaction between the activity in the spirit realm and the natural realm (1:8-11; 2:1-4; 3:1-5; 6:1-8; Dan. 10:12-13, 20-21; Eph. 6:12; Rev. 6:1-8; 12:7-9).
- 두루 다니다:** 색깔있는 말들에 (1:8) 올라타 땅에 두루 다녔던 천사 기사들은 (1:10) 이 땅을 정찰하고 주님께 다시금 보고 하였다 (1:11). 영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에서의 활동 사이에는 깊은 상호작용이 있다 (1:8-11; 2:1-4; 3:1-5; 6:1-8; 단 10:12-13, 20-21; 엡 6:12; 계 6:1-8; 12:7-9).
- G. ***Resting quietly:*** The patrolling angels reported rest, or peace, in the earth in 520 BC after Cyrus defeated Babylon (539 BC). This rest, or ease, (1:15) spoke of the conquered nations enduring Persia’s rule without openly revolting or of the absence of a major military conflict.

평안하고 조용하다: 정찰하는 천사들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패배시킨 (주전 539 년) 후, 주전 520 년에 이 땅은 평안하고 조용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평안과 안락이란 (1:15), 공개적인 반역 없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수용하고 있는 피정복 나라들의 상태, 혹은 주요한 군사적 마찰이 없었음을 뜻한다.

1. Many draw the wrong conclusion by seeing God’s patience with guilty nations. We must not misinterpret the “rest” of oppressive nations as God approving of them (Eccl. 8:11).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억압하는 여러 나라들의 “평안” 한 상태를 하나님이 인정(허락) 하신것이라고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전 8:11).

2. The Lord allowed the nations to rest at that time but He destroyed them later. With a short-term view we do not see the entirety of what God is doing, since He works from a long-term plan. These nations were still appointed for judgment (1:15, 21; 6:1-8).
 주님은 당시 여러 나라들이 평안하도록 허락하셨지만 나중에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심판이 정해져 있었다 (1:15, 21; 6:1-8).

3. All of the earth was “resting,” except for Israel, who was still under some desolation linked to her last seventy years of being under God’s discipline. Israel’s main complaint was God’s apparent silence related to the judgment of nations that were oppressing her.
 하나님의 징계하의 지난 70 년간의 시간으로 인해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제외한 온 땅이 “평온” 했다. 이스라엘의 주된 불평은 그들을 억압했던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4. God is patient with the nations in order to give them more time, so that:
 1. More people will be saved (2 Pet. 3:9)
 2. The guilt of their national sins will be filled up (Gen. 15:18)
 3. He may discipline His people by nations like Assyria (Isa. 10:5) or Babylon (Jer. 25)
 4. He may show mercy and give them time to repent and avoid judgment (Rev. 2:20-23)
 하나님은 시간을 좀 더 주시고자 열방의 나라들을 향해 인내하신다. 그 결과로:
 1. 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벧후 3:9)
 2. 열방의 죄악이 가득찰 것이다. (창 15:18)
 3. 하나님은 앗수르 (사 10:5)나 바벨론 (렘 25 장)과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4.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계 2:20-23).

H. **Myrtle trees:** The myrtle tree is symbolic of Israel. A myrtle is an evergreen tree that grows to eight feet. The lowly myrtle, rather than the proud, tall cedar, symbolizes Israel. Myrtle boughs were used to make booths for the Feast of Tabernacles, which prophetically speaks of Israel's salvation (Neh. 8:15). They were also worn by the bridegroom in ancient Israel.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화석류는 8 피트까지 성장하는 상록수다. 당당하고 키가 큰 백향목보다 오히려 초라한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화석류나무의 큰 가지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초막절에 사용하는 초막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느 8:15). 그것들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랑이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다.

I. **Stood among the myrtle trees:** The man standing among the myrtle trees symbolized the Lord standing among the people of Israel, i.e., being deeply involved with them. He watches all that happens to them and even intercedes for God's mercy to be released on them (1:12).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시다: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상징한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위해 중보하신다 (1:12).

J. **In the hollow:** The Targum and the Talmud translate this as the "valley." The valley spoke of Israel's lowly position and of being out of the world's view. In other words, it pointed to Israel's depressed position in Zechariah's day. Myrtle trees grow in a valley.

골짜기 속: 탈군과 탈무드는 이것을 "골짜기" 로 번역한다.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비천한 위치와 세상의 눈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스가랴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암울한 위치를 나타낸다. 화석류 나무는 골짜기에서 자라난다.

K. **These:** The antecedents of "these," "they," and "we" in verses 9-11 are the patrolling angels (1:10) who were riding the three colored horses (1:8).

이들: 9-11 절에 나온 "이들," "그들," 그리고 "우리" 의 선행자는 세가지 색깔의 말들을 타고 있는 정찰하는 천사들이다 (1:8).

VI. THE HORSES (1:8)

말들 (1:8)

A. The colors of the horses were red, sorrel (speckled), and white (1:8). The colors probably spoke of their mission. Angelic riders on horses patrolling the earth suggest a military context (1:10).

말들의 색깔은 붉은색, 자주빛 (얼룩무늬의), 그리고 흰색이었다 (1:8). 그 색깔들은 아마도 그들의 사명을 말하는 듯 하다. 땅을 순찰하는 말탄 천사 기수들은 군사적인 상황을 시사한다 (1:10).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슌 1:1-21)

⁸*I saw by night, and behold, a man riding on a red horse, and it stood among the myrtle trees in the hollow; and behind him were horses: red, sorrel, and white. (Zech. 1:8)*

⁸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슌 1:8)

- B. There are horses in the heavenly realm. Elijah and Elisha saw horses with heavenly chariots (2 Kgs. 2:11; 6:17). Jesus will return on a horse, with the saints also riding horses (Rev. 19:11, 14).

영적 영역에도 말들이 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천상의 병거들을 이끄는 말들을 보았다 (왕하 2:11; 6:17). 예수님은 말을 탄 성도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계 19:11, 14).

- C. **Four:** The number four is the number of the earth, or that which is worldwide. It speaks of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coming under and being affected by these judgments (1:11; 6:5).

넷: 넷이란 숫자는 이 땅의 숫자이며, 혹은 전세계적 숫자이다. 이 숫자는 이러한 심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의 네 모퉁이를 말한다 (1:11; 6:5).

- D. The four sets of horses in Zechariah 1:8-11 and 6:1-8 seem connected to the four horses in Revelation 6:1-8. In Zechariah, the meaning of the colors of the horses is not made clear. However, in Revelation 6, the meaning of each color is clearly given.

스가랴서 1:8-11 과 6:1-8 에 나온 네 말들은 요한계시록 6:1-8 의 네 말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스가랴서에서, 그 말들의 색깔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 장에 나온 각 색깔의 의미는 명확하게 주어진다.

1. In Zechariah 1:8, the horses are **red**, **sorrel** (speckled), and **white**. They functioned as an angelic patrol on the earth (1:10-11).

스가랴 1:8 에서, 말들은 **붉은색**, **자주색** (얼룩무늬), 그리고 **흰색**이다. 이 말들은 이 땅의 천사의 순찰 (정찰)의 역할을 하였다 (1:10-11).

2. In Zechariah 6:2-3, the horses are red, **black**, **white**, and **dappled** (spotted grey). They pulled four chariots between two mountains of brass and executed judgment in the earth.

스가랴서 6:2-3 에서, 말들은 **붉은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얼룩진** (회색점이 밝힌) 말들이다. 네 말들은 두 개의 산 사이에 네 개의 병거를 끌며 나왔고, 이 땅에 심판을 수행했다.

3. In Revelation 6, the horses are white, **red**, **black**, and **pale** (grayish green).

요한계시록 6 장에 나오는 말들은 흰색, 붉은색, 검은색, 그리고 청황색 (회색빛을 띠는 녹색)이다.

E. **Red horses:** The red horse speaks of bloodshed in war. John saw the rider on a red horse being given a sword to strike the earth with war (Rev. 6:4). The man riding a red horse symbolizes the impending judgment on the nations who mistreated Israel (1:21). Isaiah describes the Messiah coming to Israel in red garments, because it is the day of vengeance (Isa. 63:1-6).

붉은 말들: 붉은 말은 전쟁 가운데 난무하는 피를 의미한다. 사도 요한은 전쟁을 하면서 온 땅을 치기 위해 부여받은 칼을 가진 붉은 말 탄자를 보았다 (계 6:4). 붉은 말 탄 자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여러나라들에 닥치는 심판을 상징한다 (1:21). 이사야는 그 날은 보수하시는 날이기에 메시아를 붉은 옷을 입고 이스라엘로 오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사 63:1-6).

F. **Sorrel horses:** The Hebrew word *seruqim* translated “sorrel” can also be “speckled” or “mixed color.” The term cannot be known with certainty. It is probably a mixed color, or combination of color, signifying a mission combining judgment and mercy.

자주색 말들: “자주색”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루킴은 또한 “얼룩무늬의” 또는 “혼합된 색의” 로 번역될 수 있다. 그 단어의 뜻은 확실히 알수는 없다. 그것은 아마도 혼합된 색 또는 심판과 자비를 결합한 사명을 강조하는 색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

G. **White horses:** White is a symbol for victory, connected to going forth to conquer (Rev. 6:2).

흰 말들: 흰색은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승리의 상징이다 (계 6:2).

H. **Black horses:** The black horse speaks of mourning created by a worldwide famine (Rev. 6:5).

검은 말들: 검은 말은 전세계적인 기근 때문에 발생하는 애통을 말한다 (Rev. 6:5)

I. **Pale horses:** The pale green hors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death (Rev. 6:8). The Greek word *chloros* is translated as “pale” (ashen, or leprous yellow), and it represents the pallor of death and decay in a corpse.

청황색 말들: 청황색 말은 육체적인 죽음과 연관된다 (계 6:8). 헬라어 클로로스는 “청황색” (젯빛, 또는 문둥병자 같이 노란빛을 띠는) 으로 번역되며, 죽음의 창백함과 시체의 부패를 표현한다.

VII. THE ANGEL OF THE LORD INTERCEDED FOR GOD TO INTERVENE (1:12-13)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중보하는 주님의 천사 (1:12-13)

- A. The Angel of the Lord interceded for mercy for Israel and released comfort to them (1:12-13). Jesus' intercession is the hope of Israel. Jesus, the great intercessor prays for Israel.

주님의 천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를 위해 중보 했고 그들을 위로하였다 (1:12-13). 예수님의 중보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신다.

¹²*The Angel of the LORD answered and said, "O LORD of hosts, how long will You not have mercy on Jerusalem and on the cities of Judah, against which You were angry these seventy years?"* ¹³*The LORD answered the angel who talked to me, with good and comforting words. (Zech. 1:12-13)*

¹² 여호와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하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¹³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슌 1:12-13)

- B. **How long:** The report of the Gentile nations being at rest discouraged those in Jerusalem who continued in desolation. This difficulty moved the Angel of the Lord to intercede for the ending of the desolation related to the seventy years of trouble prophesied by Jeremiah (Jer. 25:11-12). That period was over, so why was Jerusalem still in ruins and under the yoke of the Gentiles?

언제까지: 평안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보고는, 계속적으로 폐망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의 천사는 예레미야가 예언했었던 70 년의 환난과 관련된 폐망의 종결을 간구하였다 (렘 25:11-12). 그 시기는 끝이 났지만 왜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고 이방인의 무거운 멍에 아래 있는가?

- C. **Seventy years:** There are two main views on the seventy years of the Babylonian exile. The first view is that it began in 606 BC when the first captives were taken to Babylon and continued until 536 BC when the first Jewish captives returned to Jerusalem. The second view is that it began in 586 BC with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and continued until the temple was rebuilt in 516 BC. The Lord probably intended a double reference, so both approaches can be accurately applied. The seventy years were fulfilled with amazing precision according to both of these calculations.

70 년: ‘바벨론 포로기의 70 년’ 에 대해서는 두가지 주요한 관점이 있다. 그 첫째 관점은, 이 바벨론 망명에 대해서, 포로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주전 600 년에 시작되어, 첫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주전 536 년 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둘째 관점은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 년에 시작되어 성전이 재건된 기원전 516 년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주님은 아마도 이중 언급을 의도하셨고, 그로 인해 두가지 접근이 더욱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다. 70 년의 기간은 양쪽의 이같은 계산에 따라 놀랍도록 정밀하게 성취되었다.

스가라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슥 1:1-21)

- D. **Comforting words:** God's answer to the intercession was given to the interpreting angel (1:14). The message of comfort included the revelation of God's zeal and His promise to fully restore Jerusalem, the temple, and many cities in Israel (1:14-17). The word *comfort* (1:13) is the same word Isaiah used when he prophesied about Israel in the end times (Isa. 40:1-2).

위로의 말씀: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대언하는 천사에게 주어졌다 (1:14). 위로의 메세지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한다 (1:14-17). '위로하다' (1:13)란 단어는 이사야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을 했을 때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이다 (사 40:1-2).

¹“**Comfort, yes,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²“**Speak comfort to Jerusalem, and cry out to her, that her warfare is ended, that her iniquity is pardoned.**” (Isa. 40:1-2)

¹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²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 40:1-2)

VIII. THE MESSAGE OF COMFORT (1:13-17)

위로의 메세지 (1:13-17)

- A. Zechariah was commissioned with a specific message to proclaim (1:13-17). This is the first of four prophetic oracles that Zechariah received regarding the eight visions that he had in one night (1:14-17; 2:6-13; 4:6-10; 6:9-15). Jerusalem and Zion are synonymous here. The use of dual names for the city suggests all that is related to Jerusalem in the past and to Zion in the future.

스가라는 특별한 메세지를 선포하도록 위임되었다 (1:13-17). 이것은 스가라에게 하룻밤 사이에 임한 여덟개의 환상들에 대해 받았던 예언적 오라클* 네가지중 첫째이다 (1:14-17; 2:6-13; 4:6-10; 6:9-15). 예루살렘과 시온은 여기서 유사하게 사용된다.

*역주: Oracle (오라클)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신탁(神託), 귀중한 조언/정보, 신의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어 성경에는 예언, 말씀, 중대한 경책, 경고, 엄중한 말씀, 생명의 도, 열, 노래 등으로 번역 되어 있다. 번역자는 “오라클” 로 기입하기로 한다.

¹³*The LORD answered the angel who talked to me, with good and comforting words.* ¹⁴*So the angel who spoke with me said to me, “Proclaim, saying, ‘Thus says the LORD of hosts: “I am zealous for Jerusalem and for Zion with great zeal. ¹⁵I am exceedingly angry with the nations at ease; for I was a little angry, and they helped—but with evil intent.” ¹⁶Therefore thus says the LORD: “I am returning to Jerusalem with mercy; My house [the temple] shall be built in it...and a surveyor’s line shall be stretched out over Jerusalem.”’” ¹⁷Again proclaim, saying, ‘Thus says the LORD of hosts: “My cities shall again spread out through prosperity; the LORD will again comfort Zion, and will again choose Jerusalem.”’” (Zech. 1:13-17)*

¹³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¹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¹⁵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¹⁶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슥 1:1-21)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떡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¹⁷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슥 1:13-17)

- B. **Proclaim:** Zechariah was commissioned to proclaim the message of God’s zeal for Jerusalem (1:14) and the sure destruction of her enemies (1:15, 21). Make this part of your life message. Proclaim everywhere that God has great zeal for Jerusalem, His people, and His purpose.

선포하라: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메시지와 (1:14) 적들의 확실한 멸망에 (1:15, 21) 대한 메시지를 외치도록 위임받았다. 이것을 당신의 삶의 메시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열정을 어디서든 선포하라.

¹⁴ **“Proclaim, Thus says the LORD of hosts: “I am zealous for Jerusalem...with great zeal.”**
 (Zech. 1:14)

¹⁴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슥 1:14)

- C. **Zeal of God:** The revelation of God’s zeal was the core message given to Zechariah in verses 14-17. God has zeal, or burning desire, for His people and purpose. We must grow in our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God’s emotions. His desire is manifest in Jesus as an affectionate Bridegroom, powerful King, and righteous Judge who removes all that hinders His love.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계시는 14-17 절을 통하여 스가랴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질투와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자라 나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열망은 애정이 넘치는 신랑, 능력있는 왕,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1. **Zealous for Jerusalem:** The Lord will visit Jerusalem with His glory and will fight to defend her against the political oppression of the Gentiles and the spiritual compromise of the Jewish people. He desires Jerusalem’s covenant loyalty and her promised destiny.

예루살렘에 대한 질투: 주님은 그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할 것이며 이방의 정치적인 억압과 유대인의 영적인 타협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실 것이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언약에 충실하고 약속된 부르심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2. **Zealous to live in Jerusalem:** The Lord is zealous to live in Jerusalem forever (1:16; 2:5, 10). Jerusalem is the city of the great king (Ps. 48:1-5; Mt. 5:35) and will be the political, spiritual, educational, and financial capital of the millennial earth (Isa. 2:2-4; Jer. 3:17).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스 1:1-21)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열망하신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열망하신다 (1:16; 2:5, 10).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자 천년동안 이 땅에서 정치적, 영적, 교육적, 그리고 재정적인 수도가 될 것이다 (사 2:2-4; 램 3:17).

¹⁶*“I am returning to Jerusalem with mercy; My house [the temple] shall be built in it.”*
(Zech. 1:16)

¹⁶ 내가 긍휼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 되리니...
(스 1:16)

3. ***Zealous to build the temple***: Jesus will build His house (temple, 6:12) as the place of His throne (Ezek. 43:6-7) and the epicenter of His activity throughout the millennial earth.

성전 짓기를 열망하신다: 예수님은 그분의 보좌가 있을 장소와 천년동안 온 땅에 활동하실 중심지로서 주님의 집 (성전, 6:12) 을 세우실 것이다 (겔 43:6-7).

¹²*The Man [Jesus] whose name is the BRANCH...shall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Zech. 6:12)

¹²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예수님]이...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 6:12)

⁶*I heard Him speaking to me from the temple...⁷He said to me, “Son of man, this is the place of My throne...where I will dwell in the midst of the children of Israel forever.”*
(Ezek. 43:6-7)

⁶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⁷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겔 43:6-7)

4. The Lord helped Zerubbabel to build the temple in Zechariah’s generation (4:6-10). He completed it in five years, dedicating it in March 516 BC (Ezra 6:15). Jesus called Zerubbabel’s temple the *house of prayer*, and expressed zeal for it (Mt. 21:13; Jn. 2:17).

주님은 스가랴의 세대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스룹바벨을 도우셨다 (4:6-10). 그는 5 년이 지난 주전 516 년 3 월에 성전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헌납했다 (스 6:15). 예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 부르셨고, 그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셨다 (마 21:13; 요 2:17).

- D. ***Surveyor’s line***: The surveyor’s line was a measuring tool used in building projects. Stretching out a measuring line over a city spoke of enlarging its boundaries. Here, it symbolizes rebuilding and enlarging Jerusalem and the temple. The work began in Zechariah’s generation, and again in 1948, but this prophecy will only be completely fulfilled at the time of the millennial kingdom.

측량줄 (떡줄): 측량줄은 건물 건축에 사용하는 측량 기구였다. 한 도시에 측량줄을 펴서 뻗는 것은 도시의 경계선을 확장하는 의미였다.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고 확장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작업은 스가랴 세대에 시작했고, 다시금 1948 년에 시작되었지만, 이 예언은 천년왕국의 시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스 1:1-21)

¹⁶*I am returning to Jerusalem...and a surveyor's line shall be stretched out over Jerusalem. (Zech. 1:16)*

¹⁶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스 1:16)

- E. ***Exceedingly angry***: The Lord gives His reason for His great anger with the nations (1:15). He was angry with them because they went beyond their divine assignment in disciplining Judah.

심히 진노하다: 주님은 여러나라에게 심히 진노하시는 이유를 밝히셨다 (1:15). 주님은 유다를 징계하라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

¹⁵*I am exceedingly angry with the nations at ease; for I was a little angry, and they helped—but with evil intent.” (Zech. 1:15)*

¹⁵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스 1:15)

1. ***Exceedingly angry***: God is angry with the nations that have cruelly oppressed Israel. They must acknowledge their sin and repent to thwart the judgment that is piling up.

심히 진노하다: 하나님은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한 여러 나라들에 진노하신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쌓여지고 있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해야만 한다.

2. ***At ease***: Those anti-Semitic nations were at ease and at rest (1:11, 15), assuming that the God of Israel was not angry with them. They reasoned that since God's judgments were delayed, they would not be released (Eccl. 8:11). History proves differently, since the great empires of ancient history who cruelly struck Israel are no longer world powers.

평안하다: 반유대주의 국가들은 그 당시 평안하고 고요했는데 (1:11, 15),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지 않는다고 추측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던 것을 아예 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전 8:11).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쳤던 고대역사의 위대한 왕조들이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패망했기 때문에 역사는 이에 대해 그 추측이 옳지 않음을 증명한다.

3. ***A little angry***: God being a *little angry* can refer to a short period of His anger, as in being angry for a “little while,” instead of it describing the intensity of anger (1:2, 15). The Lord has never been angry long enough to end His relationship with Israel.

조금 노하다: 하나님이 조금 노하신다는 것은, 진노의 강도를 묘사하기 보다는 “잠시동안” 진노하듯 짧은 시간동안 진노하심을 말한다 (1:2, 15). 주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주님과과의 관계를 끝낼만큼 오래도록 진노하신 적이 없다.

4. ***They helped:*** The Lord’s ways are complex. He uses evil nations who deserve judgment to help Him discipline His people, and then He judges those guilty nations. Babylon went beyond her divine assignment in disciplining Judah (Isa. 47:5-6).

그들이 돕다: 주님의 방식은 복합적이다. 주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나라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죄악된 여러나라들을 심판하신다. 바벨론은 유다를 징계함에 있어 하나님께 받은 임무의 도를 넘어섰다 (사 47:5-6).

‘I was angry with My people...and have given them into your hand. You [Babylon] showed them no mercy; on the elderly you laid your yoke very heavily. (Isa. 47:6)

6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바벨론]가 그들을 공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사 47:6)

5. The nations can “go beyond” what the Lord wants. He sovereignly allows nations to exercise their free will by refusing to obey His plan for them, and then He judges them for their disobedience. The Lord sovereignly sets the boundaries on how far He will let any go outside of His will. Even as nations sin, the Lord still fulfills His higher purposes.

여러 나라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넘어 설 수” 있다. 주님은 여러나라가 자유의지를 발휘해 자기의 유익을 충족 시키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치 않는 것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며, 그 다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심판하신다. 주님은 얼마나 멀리 그분의 뜻을 벗어나도록 허용할 지에 대한 경계를 주권적으로 정하신다. 나라들이 죄를 지을 때 마저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더 높은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

- F. The Lord promised that the cities of Judah (1:12) would overflow with prosperity (1:17). This happened in part in Zechariah’s generation, and even more since 1948. However, the fullness of prosperity in the cities of Israel will occur after Jesus returns to live in Jerusalem (1:16).

주님은 유다의 성읍들 (1:12) 이 넘치도록 다시 번영할 것이라 약속하셨다 (1:17). 이것은 스가랴 세대에 부분적으로 일어났으며, 1948 년 이후에 더욱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도성이 누리게 될 번영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기위해 다시 오신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1:16).

17 “***Again proclaim, saying, ‘Thus says the LORD of hosts: “My cities shall again spread out through prosperity; the LORD will again comfort Zion, and will again choose Jerusalem.”’***” (Zech. 1:17)

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 1:17)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슌 1:1-21)

1. ***My cities:*** The Lord claims the cities of Israel as His own (1:17). He will personally care for, provide for, and protect these cities as His inheritance (2:4-5; Ps. 2:8-9).

나의 성읍들: 주님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자신의 것으로 밝히신다 (1:17). 주님은 자신의 유업인 이러한 성읍들을 친히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 (2:4-5; 시 2:8-9).

2. ***Again choose Jerusalem:*** The Lord told Moses that He had chosen Jerusalem, and then told Solomon that He wanted to put His Name there (2 Chr. 6:6, 34-38). In Zechariah, He again chooses Jerusalem (1:17; 2:12; 3:2) to be the epicenter of His worldwide kingdom (Isa. 2:2-4).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분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를 원하신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대하 6:6, 34-38). 스가랴서에서 보면, 주님은 그분의 전세계적인 왕국의 중심지가 되도록 (사 2:2-4) 다시금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1:17; 2:12; 3:2).

“I have chosen Jerusalem that My name may be there.” (2 Chr. 6:6)

⁶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대하 6:6)

IX. SECOND VISION: FOUR HORNS AND FOUR CRAFTSMEN (1:18-21)

두번째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 (1:18-21)

- A. Zechariah saw four horns representing the Gentile world powers that scattered Israel (1:18-19). The second vision gives more details about the Lord’s message of comfort (1:13, 17). It shows us what God will do to the Gentile world powers with whom He was “exceedingly angry” (1:15)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흩었던 이방 세계의 권력을 의미하는 네 개의 뿔을 보았다 (1:18-19). 이 두번째 환상은 주님의 위로의 메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면을 제시한다 (1:13, 17).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신” 이방세계의 권력에 대해 무엇을 행하실지 보여준다 (1:15).

¹⁸Then I raised my eyes and looked, and there were four horns. ¹⁹And I said to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What are these?” So he answered me, “These are the horns [empires] that have scattered Judah, Israel, and Jerusalem.” (Zech. 1:18-19)

¹⁸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¹⁹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 [제국들]이니라. (슌 1:18-19)

- B. ***Horns:*** Horns are symbolic of power (Deut. 33:17; 1 Sam. 2:10; 1 Kgs. 22:11; Ps. 18:2; 22:21; 75:10; 89:17, 24; 92:10; 112:9; 132:17; Jer. 48:25; Ezek. 29:21; Dan. 7:7-8, 24; 8:3, 5-6, 20-21; Rev. 5:6; 13:1; 17:3, 7, 12). Animals defend themselves and attack with their horns.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슌 1:1-21)

뿔들: 뿔들은 권능을 상징한다 (신 33:17; 삼상 2:10; 왕상 22:11; 시 18:2; 22:21; 75:10; 89:17, 24; 92:10; 112:9; 132:17; 렘 48:25; 겔 29:21; 단 7:7-8, 24; 8:3, 5-6, 20-21; 계 5:6; 13:1; 17:3, 7, 12). 동물들은 스스로 방어하고 그들의 뿔로 공격한다.

- C. ***What are these:*** Zechariah asked the interpreting angel for understanding of the horns (1:18). The horns are the empires that have scattered Israel (1:19) and gouged them with their horns.

이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는 대언하는 천사에게 뿔들에 대해 이해 시켜 줄것을 요청하였다 (1:8). 그 뿔들은 이스라엘을 흩었던 나라들이며 (1:19), 그들의 뿔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후벼 판다.

- D. ***The four horns:*** These probably represent Babylon, Medo-Persia, Greece, and Rome—the four Gentile world empires seen by Daniel (Dan. 2:31-45; 7:2-13). The times of the Gentiles began with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oppressing Jerusalem, and will end with the Antichrist’s oppression of Jerusalem. Daniel saw these same four Gentile world powers in the four metals of the great statue (Dan. 2) and in the vision of the four beast empires (Dan. 7). Most Jewish commentators identify the four kingdoms as Babylon, Persia, Greece, and Rome.

네 뿔들: 이것들은 아마도 다니엘이 본 네 개의 이방 제국들인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나타낸다고 본다 (단 2:31-45; 7:2-13). 이방인의 때는 예루살렘을 억압했던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핍박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네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 (단 2) 과 네 가지 짐승의 제국(나라)들의 환상에서 (단 7) 이와 똑같은 네 개의 이방인 세계의 권세를 보았다. 대부분의 유대인 주석가들은 네 나라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간주한다.

1. Some see these as the empires of Assyria, Babylon, Media, and Persia since they had already “scattered” Israel (past tense) as Zechariah specified in this vision (1:19). However, some prophetic passages speak of events yet in the future using the past tense.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가 이 둘째 환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 나라들로 인해 이미 이스라엘을 “흩었기 (과거 시제)” 때문에, 네 나라를 앗수르, 바벨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로 본다 (1:9). 그러나 어떤 예언적인 구절들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서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기도 한다.

2. Some say the number four stands for the four points of the compass. Thus, the four horns signify enemies of Israel in every direction: Syria, Assyria, and Babylon to the north; Edom and Egypt to the south; Ammon and Moab to the east; and Philistia to the west.

어떤 사람들은 숫자 4 가 나침반의 네 방위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네 뿔은 모든 방향의 이스라엘의 적들을 의미한다: 북쪽으로 시리아, 앓수르, 그리고 바벨론; 남쪽으로 에돔과 이집트; 동쪽으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서쪽으로 블레셋.

3. Others say the number four represents nations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world; thus, the four horns signify the totality of the Gentiles’ opposition of Israel throughout history.

다른 이들은 숫자 4 가 세상의 네 모퉁이에 있는 여러나라들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따라서, 네 개의 뿔들은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이방인들 전체를 의미한다.

- E. Regardless of how one interprets this, God will surely destroy any nation that oppresses Israel.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 어떤 나라라도 멸하실 것이다.

- F. Israel’s comfort was to be found in the assurance of final deliverance from all Gentiles powers. Because of the use of symbolism, Israel couldn’t be sure which nation would rise up next as a horn-empire.

이스라엘의 평안은 그들이 모든 이방인 권력으로부터 결국 해방될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찾아져야 할 것 이다. 상징주의의 사용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뿔의 제국으로써 다음에 일어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 G. ***Judah, Israel, and Jerusalem:*** The three names “Judah, Israel, and Jerusalem,” (1:19) provide an all-inclusive reference to the whole nation, regardless of which stage of history is considered.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역사의 어떤 단계가 고려 되는지와 상관없이,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이란 세 이름은 전체적인 나라라는 의미에 포괄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1:9).

- H. Zechariah saw four craftsmen overthrowing the four horn-empires that attacked Israel (1:20-21).

스가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네 뿔의 나라를 멸하는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았다 (1:20-21)

²⁰Then the LORD showed me four craftsmen. ²¹And I said, “What are these coming to do?” So he said, “These are the horns that scattered Judah, so that no one could lift up his head; but the craftsmen are coming to terrify them, to cast out the horns of the nations that lifted up their horn against the land of Judah to scatter it.” (Zech. 1:20-21)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속 1:1-21)

²⁰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흠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흠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속 1:20-21)

- I. ***Horns that scattered Judah:*** The angel repeated (1:21) what he had just said (1:19) to emphasize the severity of Judah’s suffering in being scattered so that no one could lift his head.

유다를 흠뜨린 뿔들: 천사는 흠뜨림을 당해서 어느 누구도 머리를 들 수 없게 될 정도의 유다가 겪는 고통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인이 방금 전 말했었던 것을 (1:19) 반복하였다 (1:21).

- J. ***Four craftsman:*** The craftsmen were builders with hammers that could easily shatter a brittle ram’s horn. These craftsmen were God’s tool of judgment to destroy the evil horn-empires. *Craftsman* is from the Hebrew word *harash*, which means “a worker in wood or metal.”

네 명의 장인 (대장장이: 개혁개정): 대장장이들은 부숴지기 쉬운 숫양의 뿔을 쉽사리 산산조각낼 수 있는 망치를 가진 건축자들이었다. 이 대장장이들은 악한 뿔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대장장은 “나무나 금속을 다루는 노동자” 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라쉬’ 에서 왔다.

1. These four craftsmen represent the empires of Medo-Persia, Greece, Rome, and Messiah. Each empire was used by God to cast down and destroy the horn-empire that had preceded them and had been oppressing Israel (Dan. 2:34-35, 44-45).

이러한 네 명의 대장장이들은 메대-페르시아(바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각 제국을 사용하셨는데, 앞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뿔의 제국을 그 다음 제국이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도록 쓰셨다 (단 2:34-35, 44-45).

2. The first craftsman is Persia, which broke the horn of Babylon (538 BC). The second craftsman is Greece, which, under Alexander the Great, defeated the Persian horn (331 BC). Third is the Roman Empire, which destroyed the Greeks (146 BC) (it is also the fourth horn in both its ancient form and its future revived form as the Antichrist’s empire). The fourth craftsman is the kingdom of the Messiah, who will destroy the Antichrist’s empire.

첫째 대장장은 바벨론의 뿔을 깨뜨린 페르시아이다 (주전 538). 둘째 대장장은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아래 페르시아의 뿔을 깨부순 그리스이다 (주전 331). 셋째는 그리스를 멸망시킨 로마제국이다 (주전 146). (그것은 또한 적그리스도 왕국으로써 옛 형태와 미래에 다시 부활할 형태 모두로 나타나는 넷째 뿔이다). 넷째 대장장은 적그리스도 왕국을 패망시킬 메시아 왕국이다.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2 The Coming Victory (Zech. 1:1-21)

제 2 장: 장차 임할 승리 (슥 1:1-21)

- K. ***To terrify and cast out:*** These craftsmen-empires would terrify and cast down the horn-empires who scattered Israel. This has overtones of David's prophecy of God terrifying the nations in His anger (Ps. 2:5). God is determined to destroy the nations who gouge Israel with their horns.

두렵게 하고 떨어뜨리려하다: 이러한 대장장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흠뜨리고자 했던 뿔의 나라들을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시 2:5)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은 뿔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찌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다.

- L. God will curse everyone who curses Israel (Gen. 12:3). Beware, nations of the earth, God is watching, even though He patiently waits for the right time to judge those who attack Israel. The fullness of this prophecy will occur at the end of the age (10:3-9; 12:3-9; 14:2-5, 12-16). The Antichrist's empire is certain to fail as it leads the nations to attack Israel (12-14).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다 (창 12:3).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지만, 보라, 온 땅의 나라들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이 세대의 마지막에 일어난다 (10:3-9; 12:3-9; 14:2-5, 12-16). 적그리스도 왕국이 여러 나라들을 이끌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12-14).

- M. Israel is indestructible because of God's covenant with her. He has promised to make a full end of all nations where He scattered Israel, but He will not make a full end of Israel (Jer. 30:11).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해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흠뜨렸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리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렘 30:11).

¹¹Though I make a full end of all nations where I have scattered you, yet I will not make a complete end of you. But I will correct you in justice... (Jer. 30:11)

¹¹너를 흠뜨렸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 (공의: 역주)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렘 30:11)

- N. In the two visions of Zechariah 1, the prophet reveals God's zealous heart, calling Israel to repent, warning them of judgment, and promising their full salvation, restoration, and protection. Israel can be encouraged that the Lord is zealously watching all things that pertain to them.

스가랴 1 장의 두 환상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회개로 부르며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더 나아가 온전한 구원, 회복,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열성적인 마음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저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격려를 받는다.